

## 감사하는 마음으로

조 송 자  
본회 제2 부회장



**새** 천년기가 시작  
되었고 벌써 계  
미년(癸味年)의 봄기운  
이 돕니다. 봄이 오는  
이 희망찬 날에 대구  
지하철 참사와 참여정  
부의 새대통령 취임식

이 있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맞는 현실은 너무 어지  
럽고 혼탁하며 사회 윤리 또한 병들었습니다. 우리  
들은 10년전 호스피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 
않을 때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를 창설했듯이 온  
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구참사의 영혼과 그 유가  
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, 새정부를 위해서도 많은  
기도를 해 주어야겠습니다.

우리는 다가올 미래나, 지나간 과거를 사는 것이  
아닙니다. 바로 오늘, 매일매일의 오늘을 사는 것  
입니다. 오늘은 우리를 다음날로 또 그 다음 날로  
계속 인도해 갑니다. 10년전 나는 일 중독에 빠져  
온갖 일과 활동에 전념하던 때, 마음속 깊은 곳에서  
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고, 그 소리가 때론 혼란스럽  
기도 하였지만, 분명한 것은 나의 인생 후반에 무엇  
을 할 것인가였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 
고민하던 중에 호스피스 제1기 교육을 받게 되었  
고, 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겨야 하는  
생각이 들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. 호스피스 활  
동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.

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. 나  
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가 절망의 끝에 매달려  
있다고 느낄 때가 바로 하느님 안에서 새 희망으로  
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  
었지만, 불완전하고 오류를 저지르고, 쉽게 실패하  
기도 합니다. 호스피스 활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 
이웃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인간 본연의 소중한 모  
습을 가지게 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. 인생에  
서 위기의 순간들 고통, 죽음, 배반, 상처, 실패, 포  
기, 이혼, 우울증, 질병, 실직 등이 “인생은 살만한  
가치가 있다”라는 믿음을 깨뜨릴 수 있지만 자기자  
신을 “있는 그대로” 받아 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모  
든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호스피스 활  
동을 하면서 이 봉사는 온전히, 헌신적으로 봉사할  
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 
기쁘게 봉사할 것입니다.

우리는 완벽한 사람도, 완벽하게 자선을 행하는  
것도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애  
써 노력하며 저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서로를 도와  
주려고 할 뿐입니다. 외로움, 절망감, 두려움 등의  
감정을 선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두려움과 소외  
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고통받는 이웃의 이  
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력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  
는 용기를 주며, 들어준다는 것이 해결책을 마련해  
주지 못하더라도 새롭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힘  
을 키웁니다.

그러므로 선택된 우리들은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친절, 겸손, 온유, 인내로 서로 이해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, 그것이 우리들에 뭉치기도 합니다. 사랑은 완덕의 끈이기에 호스피스 활동은 가장 절박한 생의 마지막 시간에서 있는 말기 환자와 그 남은 가족들을 돕는 일입니다.

10년이 지난 이 때 늦은감은 있지만, 정부가 호스피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. 그래서 대정부활동에서 단일화된 조직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동안의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이롭다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종교적 차원을 넘어, 초창기의 순수

하고 사랑이 가득찬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한마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동의 목표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. 먼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하여 호스피스 발전에 혼신할 때입니다. 정부는 제도화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,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우리나라 호스피스 활동은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.

갈수록 어려워지고 각박해져 가는 이 사회에 호스피스 활동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

## 분을 기다리는 마음

- 정숙진 -

겨울바람  
 길목길 돌아 큰 길로  
 चलन 마음 치는 데

평을 기다리는 마음  
 네가 예서성인이다.

아직은  
 작은 꽃은  
 가지 끝에 매달려  
 대풍이 불 땀 아오 땀겨려

핑크빛 트윌까  
 노란빛 트윌까

눈만 말뚱 거린다.